

32주 허영의 시장 (3)

허영의 시장에는 순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재판 시간이 정해졌고, 순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갔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순례자들은 그들의 적들 앞으로 인도되었고, 죄상의 진위 여부를 추궁 당했다. 재판장의 이름은 선을 미워하는 자(Lord Hate-Good)였다. 그들의 고발은 형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 내용에서는 같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우리의 상업에 원수이며, 방해자다. 이들은 도시에 폭동과 분열을 조장했으며, 자신들의 가장 위험한 견해로 당파를 조성해 우리 왕의 법률을 경멸하도록 만들었다.”

그때 성실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자신은 화평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동조한 것은 우리의 진리와 무죄함을 보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것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왕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 주의 적인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¹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죄수들에게 반박하려는 자는 나와서 증언하라는 선언이 내려졌다. 그래서 증인 세 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질투(Envy), 미신(Superstition), 아첨꾼(Pickthank)이었다. 그들은 죄수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받았으며, 그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죄인들을 반박하라고 요청받았다.

그때 질투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다.

질투— 재판장님,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며, 이 영예로운 법정에서 맹세코 진실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판장— 잠깐, 선서부터 하시오.

그들은 선서를 했고, 질투는 말하기 시작했다.

질투— 재판장님, 이 사람은 이름이 그럴싸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열한 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나 백성, 법과 관습을 존중하지도 않으며, 일반적으로 믿음과 거룩의 원리라고 불리는 자신의 불충한 사상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² 특별히 언젠가 제가 그에게서 들었는데 기독교와 허영의 도시 관습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재판장이 질투에게 말했다) 할 말이 더 있는가?

질투— 재판장님, 할 말이 많지만 법정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사 분들이 증거하실 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에게 처분 내리기에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저의 증언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질투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그들은 미신을 불렀다. 그리고 죄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라고 명령했다. 또한 그들은 미신에게 자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위해 그를 고소하라고 말했다. 미신은 선서한 후에 증언을 시작했다.

미신—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는 매우 성가신 친구입니다. 어느 날 이 도성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의 종교가 무가치하며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정죄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드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³

다음으로 아침꾼이 선서했다. 재판장은 바알세불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고소하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라고 명령했다.

아침꾼— 재판장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신사 여러분, 나는 이자를 오랫동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도 들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왕이신 바알세불을 비방했고, 그의 영예로운 친구들인, 옛 사람 경(Lord Old Man), 육신적 즐거움 경(Lord Carnal Delight), 사치 경(Lord Luxurious), 헛된 영광 경(Lord Desire of Vain Glory), 내 오랜 친구 음란 경(Lord Lechery), 탐욕 경(Sir Having Greedy)과 우리의 나머지 귀족을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귀족들은 더는 이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하기 위해 지명된 재판장님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재판장님을 경건하지 못한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많은 증상으로 우리 도시 대부분의 신사 분을 욕했습니다.

아침꾼이 말을 마치자, 재판장은 법정에서 죄인에게 말했다. “부랑자요, 이단자이며, 반역자인 이 악인아! 정직한 신사 분들이 너에 대해 증거한 것을 들었느냐?”

성실— 저 자신을 변호하는 몇 마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 어이, 이 악당아! 너는 더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야 마땅하지만,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한 우리의 온유함을 볼 수 있도록 네가 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 더러운 악당아, 말해 보아라.

성실— 첫째로, 질투 씨가 말한 것에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규칙, 법, 관습, 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맞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독교에 반대된다는 것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말했다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시키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들 앞에서 내 말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미신 씨가 나에게 대해서 고소한 것에 대해 이 말만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믿음의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의 신적인 계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적인 계시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예배에 끼워 넣는 것은 단지 인간의 믿음에 불과하며, 영생에 어떤 유익도 없는 믿음입니다.⁴

셋째로, 아침꾼 씨가 말한 것에 대해 내가 드릴 말씀은(내가 비방하고 헐뜯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그만두고) 이 도성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무리는 이 고장과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불렀다. 배심원들은 옆에 서서 듣고 바라보고 있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자는 우리 도시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덕망 있는 신사 분들이 이자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자의 대답과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자를 목매달 것인가, 살려 둘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왕의 신하인 바로 왕 시대에 법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종교가 확산되거나 너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던지라는 법령이었습니다(출 1장). 우리 왕의 또 다른 신하인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법령이 있었는데, 자신의 금 신상에 절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든 자를 뜨거운 용광로에 처넣도록

규정했습니다(단 3장). 또한 다리오 왕 시대에도 법령이 있었는데, 어떤 기간에 다리오 외에 어떤 신을 부르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도록 규정한 것입니다(단 6장).⁵ 지금 이 반역자는 모든 법령을 생각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이것도 참을 수 없는데) 말과 행동으로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법령을 만든 이유는 아직 범죄가 분명하지 않지만 결국 범죄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자는 우리의 종교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자가 고백한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으려고 법정에서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맹인(Mr. Blind-man), 무가치(Mr. No-good), 악의(Mr. Malice), 정욕 사랑(Mr. Love-lust), 느슨함(Mr. Live-loose), 무모(Mr. Heady), 교만(Mr. High-mind), 증오(Mr. Enmity), 거짓말쟁이(Mr. Liar), 잔인(Mr. Cruelty), 진리 혐오(Mr. Hate-light), 무자비(Mr. Implacable)였다.⁶ 배심원은 모두 개인적으로 피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곧 만장일치로 재판장 앞에서 피고가 유죄라고 판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 중에서 배심장(陪審長)인 맹인이 먼저 나와서 말했다. “나는 이자가 이단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가치가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악의는 “예, 나는 이자를 쳐다보기도 싫소.”라고 말했다. 정욕 사랑이 “나도 이자를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소.”라고 하자 느슨함도 “나 역시 견딜 수 없소. 그자는 항상 내 생활 방식을 정죄했기 때문이요.”라고 말했다. 무모가 “저자를 목매답시다. 목매달아야 합니다.”라고 외치자 교만은 순례자들을 향해 “비열한 자식 같으니!”라고 욕했다. 증오는 “저 인간을 보면 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라고 했고, 거짓말쟁이는 “저자는 부랑자요.”라고 외쳤으며, 잔인은 “저자를 목매다는 것은 그에게 과분한 일이요.”라고 소리 질렀다. 진리 혐오가 “저놈을 어서 죽여 없애 버립시다.”라고 말하자, 무자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저 인간과 화해할 수 없소. 그러므로 어서 저자에게 사형 평결을 내립시다.”⁷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형 평결을 내렸고, 성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성실은 가장 잔인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들은 성실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의 법에 따라서 그들은 처음에 성실에게 채찍질을 가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다음에 그들은 칼로 성실의 피부를 도려냈다. 그러고는 성실에게 돌을 던졌고, 성실의 몸을 칼로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을 불에 태워 죽였다. 이렇게 성실은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군중 뒤에서 마차 한 대와 말 두 필이 성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원수들이 성실을 죽이자마자, 성실은 마차에 태워져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구름을 통과해 천성의 문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들려 올려졌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사형 집행이 연기되어서,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크리스천은 감옥에서 얼마간 있었으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억제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결국 크리스천은 탈출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⁸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성실 씨, 그대는 주께 충성했습니다.

그대는 주와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 헛된 즐거움과 함께 있다가

결국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에 대해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대의 이름은 기억에 남으리.

비록 그들이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Q&A>

1. 성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행 4:19-20)
2. 세상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6:20)
3. 로마 가톨릭에는 미신과 같은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 4:24, KJV 참조)
4.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예배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행 7:41)
5.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압박하려는 인간들의 정치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단 5장)
6. 참된 신앙의 증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원수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시 2:1)
7. 이들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딤후 1:20)
8. 성실은 비록 순교했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섭리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데 차별을 두십니까? (행 12:2, 11)